별첨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지난 1년간 배우자 ·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 **(지난 1년간 폭력 피해율)**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지난 1년간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1.9%**, **4개 유형**(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1] **폭력**은 **5.9%**, **통제**를 포함한 **5개 유형 폭력***은 **25.2%**임

※ 신체적 폭력 1.1%, 성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0.6%, 정서적 폭력 4.9%, 통제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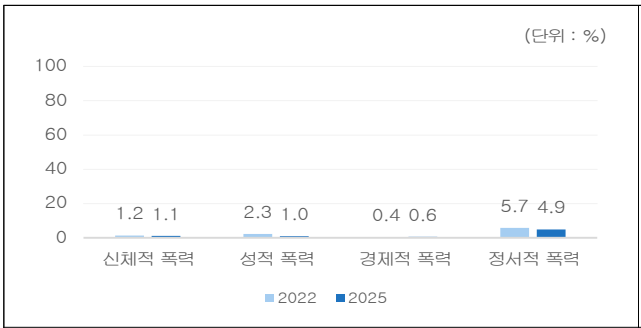
- **(폭력 유형별 피해 증감)** **'22년보다 경제적 폭력**(0.4→0.6%)은 **소폭 증가**, **신체적**(1.2→1.1%), **성적**(2.3→1.0%), **정서적 폭력**(5.7→4.9%), **통제**(24.7→23.7%*)는 **감소**함

※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 : ('22) 3.2%→ ('25) 1.9%(1.3%p↓)
4개 유형 폭력 피해율 : ('22) 7.6%→ ('25) 5.9%(1.7%p↓)
5개 유형 폭력 피해율 : ('22) 27.5%→ ('25) 25.0%*(2.5%p↓)
* '22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5년 통제 세부 유형에 추가된 2개 항목(디지털 기기 이용 감시, 온라인 활동 통제)을 제외하고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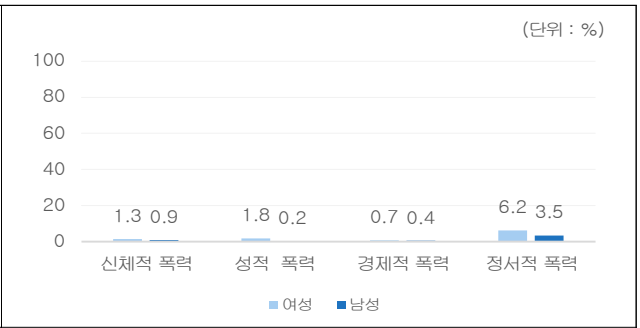
○ **(성별 피해)**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2.6%, 남성 1.1%, 4개 유형 폭력**은 **여성 7.6%, 남성 4.1%, 5개 유형 폭력**은 **여성 26.6%, 남성 23.7%**로 나타남

- **남녀 모두 통제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여성 24.5%, 남성 23.2%), 그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여성 6.2%, 남성 3.5%)이 높게 나타났으나,

- 이어지는 순위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은 **성적**(1.8%), **신체적**(1.3%), **경제적**(0.7%) **폭력 피해 순**이었고, **남성**은 **신체적**(0.9%), **경제적**(0.4%), **성적**(0.2%) **폭력 피해 순**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유형별)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성별)

---

1) * <폭력 유형 개수별 분류>

2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폭력
4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5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통제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2022년, 2025년 >

(단위: %)

구 분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계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022	1.2	2.3	**3.2**	0.4	5.7	**7.6**	24.7	**27.5**
	2025	1.1	1.0	**1.9**	0.6	4.9	**5.9**	23.7	**25.0**
여성	2022	1.3	3.7	**4.6**	0.7	6.6	**9.4**	25.1	**28.7**
	2025	1.3	1.8	**2.6**	0.7	6.2	**7.6**	24.4	**26.5**
남성	2022	1.0	0.8	**1.8**	0.2	4.7	**5.8**	24.3	**26.3**
	2025	0.9	0.2	**1.1**	0.4	3.5	**4.1**	23.0	**23.5**

주 : 2022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025년 통제 세부 유형에 추가된 2개 항목(디지털 기기 이용 감시, 온라인 활동 통제)을 제외하고 산출함

2. 평생 동안의 배우자 · 파트너 폭력 피해

○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7.1%**, **4개 유형 폭력**은 **14.4%**로 나타남

* 평생 피해율은 통제 피해는 조사하지 않음

○ **(폭력 유형별 피해) 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여성 14.5%, 남성 9.9%), **여성**은 이어서 **성적**(6.4%), **신체적**(6.3%), **경제적 폭력**(4.8%) 순, **남성**은 **신체적**(3.8%), **성적**(1.8%), **경제적 폭력**(1.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피해)**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9.3%, 남성 4.9%, 4개 유형 폭력**은 **여성 17.2%, 남성 11.5%**로 나타남

< 평생 동안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4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5,560	5.1	4.1	**7.1**	3.1	12.2	**14.4**
여성	2,807	6.3	6.4	**9.3**	4.8	14.5	**17.2**
남성	2,753	3.8	1.8	**4.9**	1.3	9.9	**11.5**

주: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피해 경험임

3. 이별(이혼 · 별거 · 동거종료) 전후 폭력 피해 경험

***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이별 전후 폭력) 이별 이전과 이후**에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25.8%**(여성 32.1%, 남성 19.2%), **4개 유형 폭력**은 **50.0%**(여성 59.6%, 남성 40.0%), **스토킹**을 **포함**한 **5개 유형 폭력**은 **52.4%**(여성 60.5%, 남성 44.1%)로 나타남

- 4개 유형 폭력 기준, '22년 보다 **여성의 피해는 증가**(54.5%→ 59.6%), **남성의 피해는 감소**(47.4%→ 40.0%)하였으며, **여성**은 **정서적 폭력 피해**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경제적 폭력 피해**가 가장 **크게 감소**함

< 이별(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 분		응답 인원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스토킹	피해율 계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022	577	27.7	13.4	**30.5**	24.0	47.1	**50.8**		
	2025	541	23.4	11.8	**25.8**	18.4	46.5	**50.0**	24.1	52.4
여성	2022	374	34.8	21.4	**39.0**	27.1	51.1	**54.5**		
	2025	276	27.8	19.9	**32.1**	25.9	54.8	**59.6**	29.1	60.5
남성	2022	203	21.0	6.0	**22.6**	21.1	43.3	**47.4**		
	2025	266	18.8	3.3	**19.2**	10.6	37.8	**40.0**	18.9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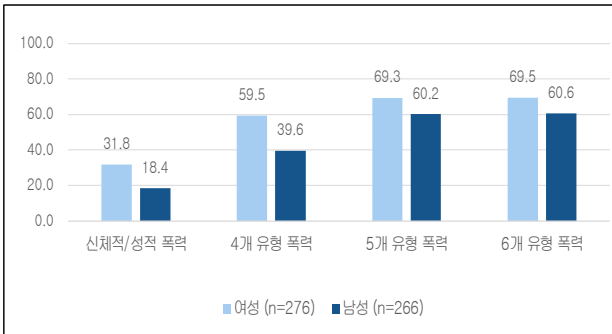
주: 1) 이별 전후 피해율은 이혼, 별거, 동거종료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2) 스토킹은 2022년 대비 2025년 조사 항목을 전면 조정하여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2025년 결과만 제시함.

○ **(이별 전 폭력) 이별 전** 당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25.2%**(여성 31.8%, 남성 18.4%), **4개 유형 폭력**은 **49.7%**(여성 59.5%, 남성 39.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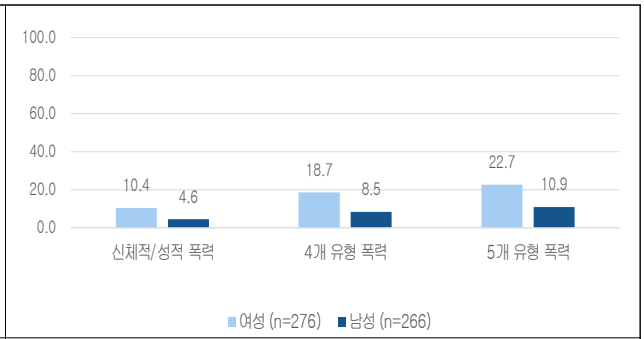
- **5개 유형(통제 포함)**은 **64.8%**(여성 69.3%, 남성 60.2%), **6개 유형(스토킹 포함)**은 **65.1%**(여성 69.5%, 남성 60.6%)로 나타남

○ **(이별 후 폭력) 이별 후** 당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7.5%**(여성 10.4%, 남성 4.6%), **4개 유형 폭력**은 **13.7%**(여성 18.7%, 남성 8.5%), **5개 유형(스토킹 포함) 폭력**은 **16.9%**(여성 22.7%, 남성 10.9%)로 나타남

*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스토킹은 이별 전후 경험을 모두 측정하며, 통제는 이별 전 경험을 측정함



이별 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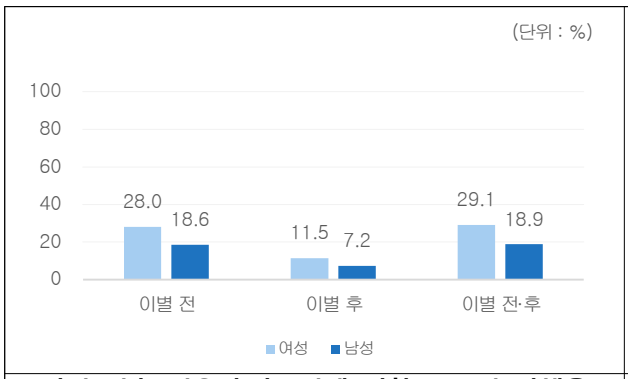


이별 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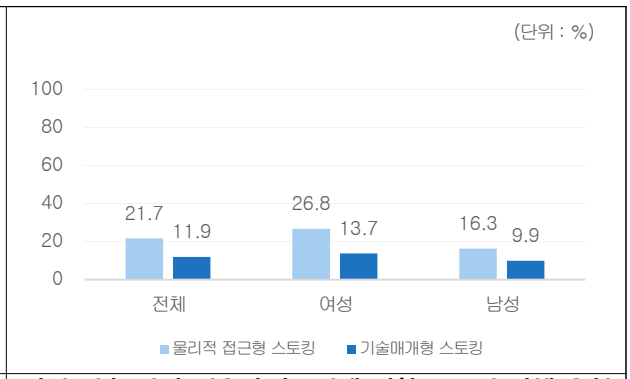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24.1%**(여성 29.1%, 남성 18.9%)로, 남녀 모두 이별 후(9.4%, 여성 11.5%, 남성 7.2%)보다 **이별 전**(23.4%, 여성 28.0%, 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높게** 나타남

-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21.7%)이 기술매개형 스토킹(11.9%)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모두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 여성 26.8%, 남성 16.3%, 기술매개형 스토킹 : 여성 13.7%, 남성 9.9%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율



이별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유형

<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전체) >

(단위: %)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별 전	이별 후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찾아오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섰다	8.8	3.5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들어오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	7.2	4.6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훼손했다	3.8	0.3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2.2	5.1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6.0	5.8
기술 매개형 스토킹	전화, 이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선물, 편지, 문자, 영상 등을 보냈다	8.0	4.5
	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SNS,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 나타나거나 지켜봤다	4.1	1.2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나인 척하며 지인들에게 문자(카톡)를 보내거나 모욕적인 글·사진 등을 게시했다	4.3	2.8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나에 대한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3.4	2.7
	GPS, 휴대폰 앱 등 전자장치를 이용해 나의 위치를 감시하거나 추적했다	1.1	0.4

4. 폭력피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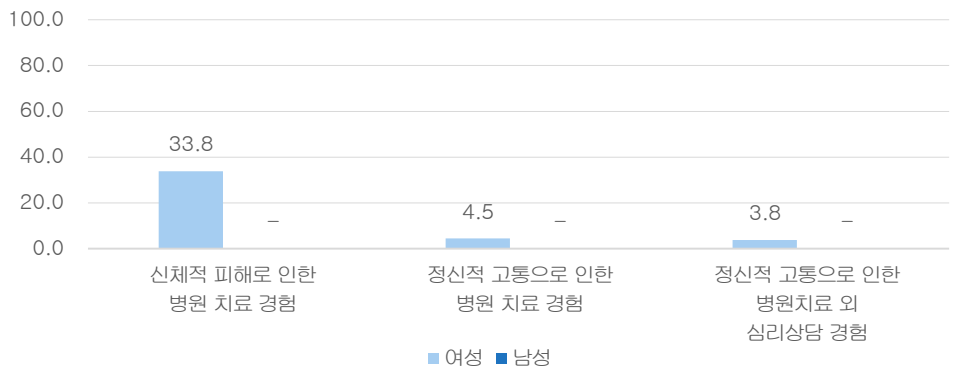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주거 피해 영향을 조사**

○ **(신체적 피해)**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가 있었던 경우는 **10.7%**(여성 10.0%, 남성 12.0%),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이 있었던 경우는 **10.0%**(여성 8.9%, 남성 12.1%)로 나타남

- 신체적 피해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39.0%**(여성 44.0%, 남성 32.9%)이며, **병원 치료 경험**은 **18.6%**(여성 33.8%, 남성 없음)로 나타남

○ **(정신적 고통)**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수준**(4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1.5점**(여성 1.6점, 남성 1.5점)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 정신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5.2%**(여성 6.1%, 남성 3.2%)이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3.1%**(여성 4.5%, 남성 없음),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2.6%**(여성 3.8%, 남성 없음)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단위 : %)>

○ **(경제활동 영향)**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6.9%**(여성 7.1%, 남성 6.4%)로,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22.5%)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자의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받은 경제활동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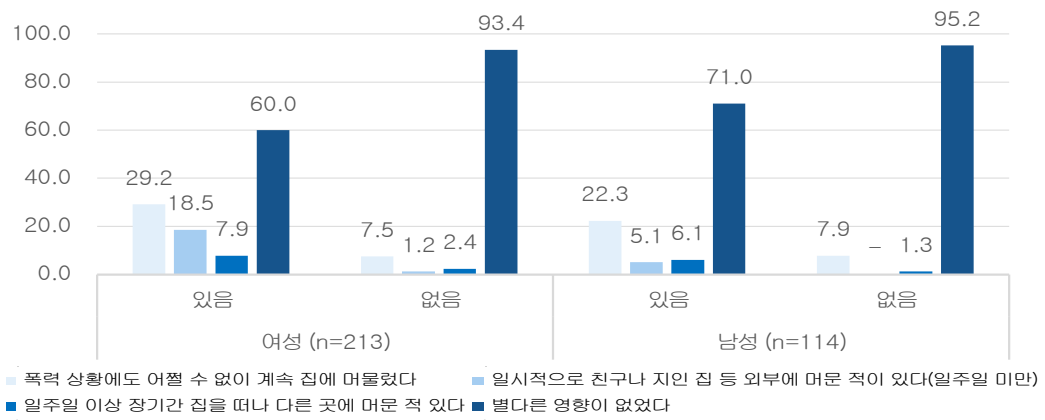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경제활동 영향 경험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전체	있음	77.5	**22.5**
	없음	96.7	**3.3**
여성	있음	74.6	**25.4**
	없음	96.7	**3.3**
남성	있음	81.9	**18.1**
	없음	96.7	**3.3**

○ **(주거 영향)**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주거에 영향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주거 불안정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문 적이 있다**(여성 4.2%, 남성 1.1%)와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 머문 적이 있다**(여성 3.4%, 남성 2.4%)의 항목은 여성과 남성의 경험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특히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 여부**에 따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 **격차**가 **33.4%p**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없는 여성보다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는 경우는 약 3배**(7.9%, 2.4%), **일시적으로** 친구나 지인 집 등 **외부에 머문 경험**은 **15배 차이**를 보임(18.5%, 1.2%)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주거 영향 (단위 : %)>

5. 복합 피해 경험

○ **(지난 1년간 복합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두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 유형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남

- **2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는 **여성 16.8%, 남성 12.7%**이며, **3개 유형 중첩**은 **여성 3.5%, 남성 2.3%**, **4개 유형 중첩**은 **여성 1.9%, 남성 0.5%**, **5개 유형 중첩**은 **여성 0.7%, 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복합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중첩**되는 **피해 개수**도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별 전후 복합 피해)**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79.7%, 남성 66.5%**로 나타남

- 2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는 여성 24.5%, 남성 25.5%, 3개 유형 중첩은 여성 19.8%, 남성 16.8%, 4개 유형 중첩은 여성 10.9%, 남성 14.3%임
- 5개 유형과 6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피해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으며, 여성은 **7개 유형* 중첩 피해율**이 **9.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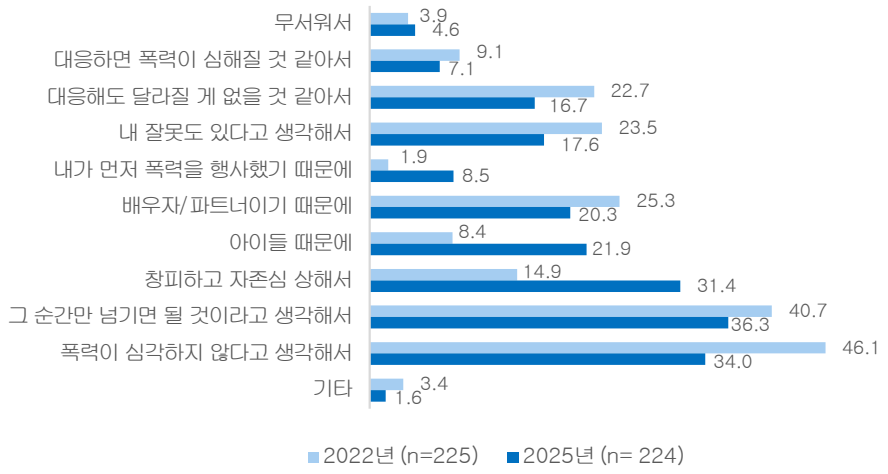
*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경우 **38.2%**가 **6개 이상** 유형의 피해를 **중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남성 8.0%)

6. 폭력에 대한 대응 및 도움 요청

○ **(대응 경험)**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68.5%**(여성 65.6%, 남성 74.0%)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해, '22년(53.3%) 보다 15.2%p 증가함

○ **(대응하지 않은 이유)**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아이들 때문에'(21.9%),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20.3%),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7.6%)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합산



<배우자/파트너 폭력에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순위+2순위) (단위: %) >

○ **(대응 방식)** 대응을 한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방에게 맞대응했다'**(23.2%, 여성 24.8%, 남성 20.2%),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7.9%, 여성 10.0%, 남성 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2.7%, 여성 2.5%, 남성 2.9%) 순임

○ **(도움 요청 경험)** 폭력 경험 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9%**(여성 84.3%, 남성 74.5%)로 나타남

-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남성의 도움 요청 경험 비율*은 '22년 3.3%에서 '25년 25.5%로 크게 높아짐

* (남성) '19년 5.8%→ '22년 3.3%→ '25년 25.5%, (여성) '19년 19.7%→ '22년 10.3%→ '25년 15.7%

○ **(도움 요청 대상)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 익명의 사람들'(1.5%), '경찰'(1.1%), '종교지도자'(0.9%),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0.7%), '여성긴급전화 1366'(0.5%) 순으로 나타남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62.8%),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7.3%), **'자녀들을 생각해서'**(35.9%)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61.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57.1%),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44.3%) 순으로 나타남 * 각1·2순위 합산

< 지난 1년간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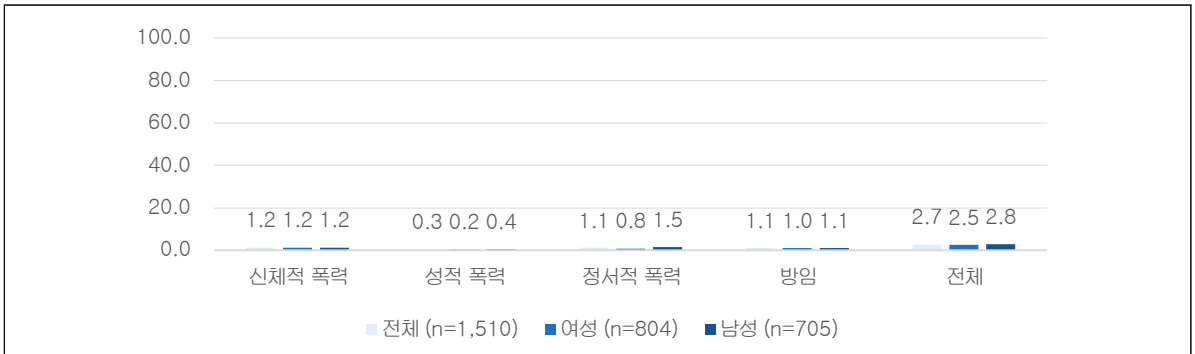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없음	있음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 (입소시설)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익명의 사람들	기타
전체	327	80.9	1.1	10.1	10.7	0.9	0.5	0.7	1.5	-
여성	213	84.3	1.1	9.1	9.7	0.8	0.8	1.0	1.3	-
남성	114	74.5	1.1	11.9	12.7	1.0	-	-	2.0	-

7. 아동 · 가족원 · 노인 폭력

○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지난 1년간 아동폭력 가해율**은 **2.7%**(신체적 1.2%, 성적 0.3%, 정서적 폭력 1.1%, 방임 1.1%)임

- **남성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8%, 여성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5%**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단위: %) >

○ **(배우자·파트너 폭력 경험과 아동학대 가해)**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0.9%**로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율(2.4%) 보다 낮았으며,

-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4.2%**로 피해 경험이 없는 남성의 가해율(2.6%) 보다 높았음

-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은 **7.5%**로 가해 경험 없는 남성(2.5%) 보다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격차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 2.3%, 없는 경우 2.4%

○ **(가족원 폭력 피해)**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간 가족원폭력 피해율**은 **3.1%**(신체적 0.7%, 성적 0.4%, 정서적 2.3%, 경제적 폭력 0.3%)로, **여성의 피해율 3.3%, 남성의 피해율 2.9%**로 나타남

- 주가해자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서 **'아버지'**, **성적 폭력**에서 **'배우자·파트너의 아버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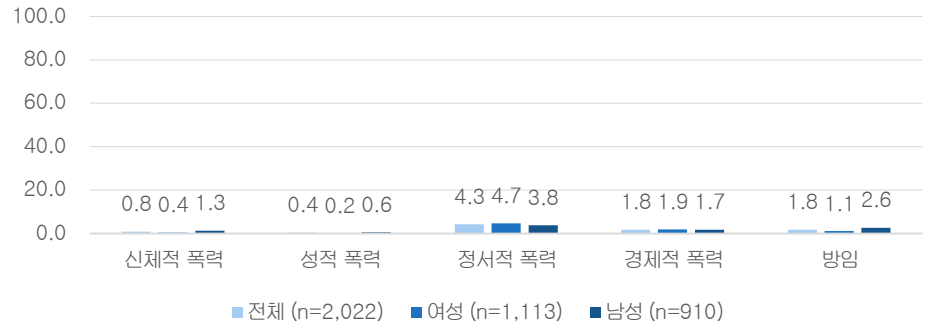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 분	응답 인원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피해율 계
전체	7,055	0.7	0.4	2.3	0.3	3.1
여성	3,471	0.7	0.6	2.4	0.4	3.3
남성	3,584	0.7	0.2	2.3	0.2	2.9

○ **(노인 폭력 피해)**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배우자·파트너 외의 가족구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율**은 **5.4%***(여성 5.2%, 남성 5.7%)로, **여성노인**은 **정서적·경제적 폭력**이, **남성노인**은 **신체적 폭력·방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신체적 0.8%, 성적 0.4%, 정서적 4.3%, 경제적 폭력 1.8%, 방임 1.8%



<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경험 (단위: %) **>**

- 노인폭력 **주가해자**는 **'아들', '아버지', '여자 형제', '어머니'** 등이었으며, **노인폭력 피해 경험자**의 **16.5%**는 **주가해자와 동거**(남성 22.3%, 여성 11.2%)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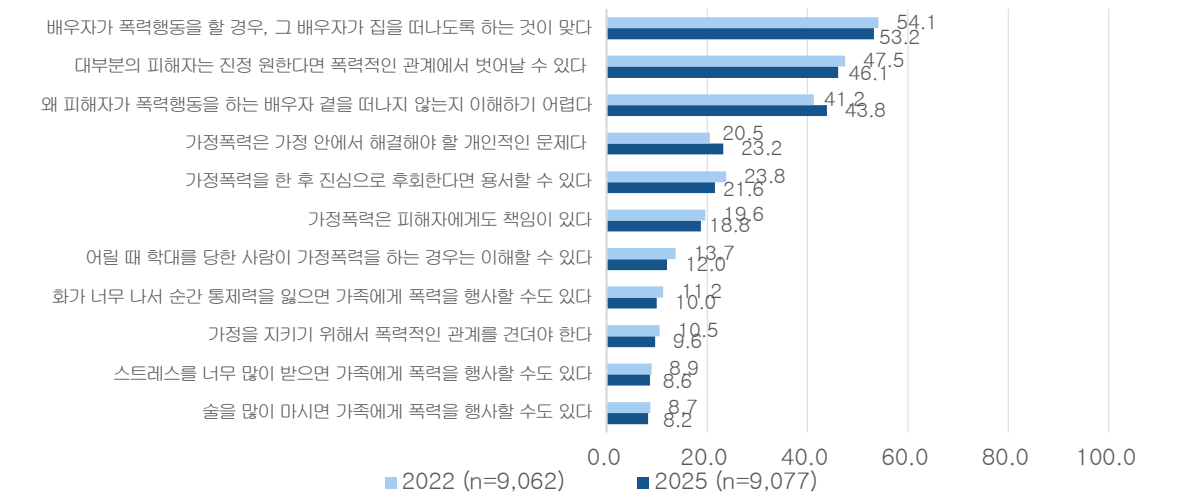
8. 가정폭력 인식 및 법·제도 인지도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11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1.8점**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약화**되었으나,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4점까지 응답,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통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

-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21.6%),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12.0%)의 '그렇다' 응답은 **2022년 보다** 각각 **2.2%p, 1.7%p 감소**함

- '왜 피해자가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3.8%),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23.2%)의 **'그렇다'** 응답은 **2022년 보다 각각 2.6%p, 2.7%p 증가**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

○ (신고 인식)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2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2022년**(3.3점) 보다 **0.1점 낮게** 나타났으며,

- **이웃의 아동학대** 또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 시 **신고가 마땅하다**는 인식에서 '매우 그렇다' 응답은 **아동학대 43.6%, 부부간 폭력 27.6%**로, **2022년**(각각 45.1%, 33.3%) 보다 각각 **1.5%p, 5.7%p 감소**함

○ **(법·제도 인지도)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77.9%)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다'(73.2%),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72.8%)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59.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62.7%)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 여부 >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 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77.9**	22.1	76.9	23.1	78.9	21.1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7.8**	32.2	65.8	34.2	69.8	30.2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59.1**	40.9	57.2	42.8	61.1	38.9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62.7**	37.3	60.8	39.2	64.7	35.3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67.3**	32.7	66.6	33.4	68.0	32.0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66.4**	33.6	65.3	34.7	67.5	32.5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66.4**	33.6	66.1	33.9	66.7	33.3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73.2**	26.8	70.8	29.2	75.8	24.2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72.8**	27.2	71.7	28.3	73.9	26.1
진행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68.0**	32.0	66.5	33.5	69.6	30.4
장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70.2**	29.8	68.8	31.2	71.7	28.3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은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67.1**	32.9	64.9	35.1	69.2	30.8

○ **(지원기관 인지도)**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112**(83.7%)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 다음으로 **가정폭력 상담소**(65.1%), **아동보호전문기관**(62.3%), **성폭력 상담소**(62.3%), **노인보호전문기관**(57.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49.8%), **여성긴급전화1366**(47.0%) 순으로 나타남

○ **(정책 필요성 인식)** 가정폭력 방지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3.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지역사회, 직장 및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발견** 및 **조기 개입**',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현장 초기 대응 강화**'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각 3.4점)